

자기와 경쟁 “쉽없이 배우자”

평생학습과 불자

최근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다.

원래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은 1965년경부터이며, 이의 보급은 UN의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이념으로 정립되었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에서까지 ‘국가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규정은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평생학습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들 평생학습을 성인교육, 연수교육, 계속교육 등과 같이 지식 기술의 급진적 증가 및 변화에 따르는 후속 학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생학습은 이보다 훨씬 넓고 깊으며 인간의 ‘삶’ 전체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범위는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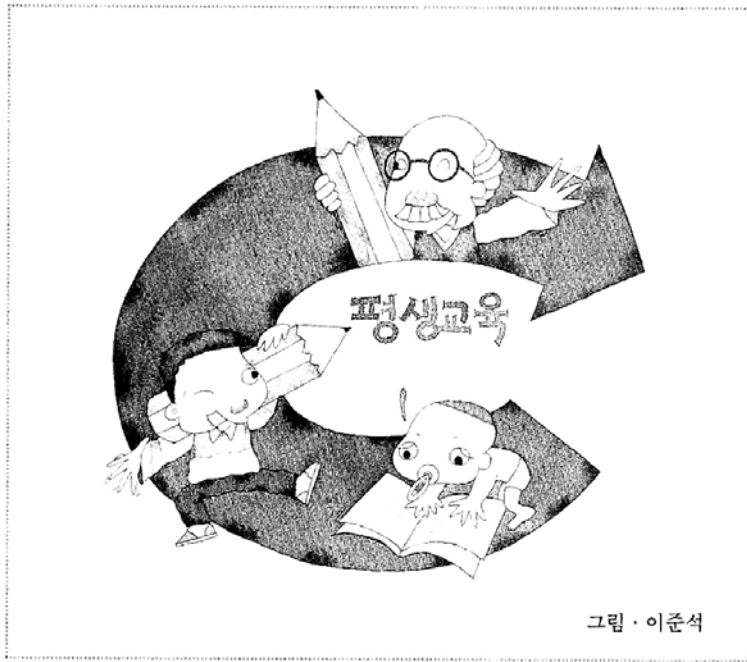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삶의 질’ 향상위해 반성하는 생활하자”

‘삶’의 폭만큼 넓고 깊다.

‘삶의 질 향상’은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 상대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찾을 때 참다운 의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3년 전에는 책보에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은 되었는데 최근에는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평생학습의 낙오자이며, 3년 전에는 사람과 사귀어 내어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이룩하였는데 최근에는 갈등과 마찰이 심하여졌다면 평생학습의 낙오자이며, 3년 전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내가 입에 오르내리며 마찰을 빚고 있다면 또한 평생학습의 낙오자이다.

평생학습의 실천자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말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 달라지는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평생 동안에 걸쳐 참이 배워야 한다.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과거이며 어제보다 오늘의 ‘삶의 질’

이 향상되었는지를 반성하는 생활을 할 때 자기 충족감에 넘치는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개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5년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지만 이의 실천은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 왔다. 필자는 평생학습의 실천자로 공자님을 꼽고 싶다. 공자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吾十有五而志于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五十而知天命，六十而耳順，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자님의 말씀은 바로 평생학습의 정곡을 짚은 말씀이다. 즉 공자님은 ‘삶의 질’을 나선형으로 향상시켰다. 15세보다 30세, 30세보다 40세, 40세보다 50세, 50세보다 60세에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보다 원숙한 인간이 되었으며 70세에 이르러서야 ‘하고 싶은 바 마음대로 하여도 도덕, 법도에 어긋나는 바가 없는’ 완전 자유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서는 평생동안에 걸쳐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고승이라고 칭송하는 스님들은 평생학습자였다. 필자는 50여년 전인 1945년에 오대산 상원사(上院寺)에서 방한암(方漢岩) 큰스님을 친견한 바 있는데 그때 스님의 세수(歲數)는 70세였다. 그런데 필자가 놀란 일은 스님의 정진하는 모습이었

대부분의 이문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사고에서 태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평생학습 개념 속에 태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 이도 서구적인 ‘만 몇세’의 개념보다는 한국의 ‘당 몇세’의 개념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직적 통합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발달 과업(developmental tasks)이며, 다른 하나는 항구적 가치이다.

발달 과업이란 “인간의 각 발달시기에 학습해야 할 과업으로서 이 학습을 이룩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기초가 되어 그 성취를 기약하며 이에 실패하면 개인의 불행, 사회적 부적응이 나타나고, 후기 발달 과업 학습에 곤란을 가져오는 학습과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발달 과업 개념은 헤비가스트(Havighurst)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그는 인간의 발달을 유아기, 아동 중기, 청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 후기의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다 른 하나의 개념은 ‘항구적 가치’이다. 발달 과업이 발달의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항구적 가치’는 발달 단계와 관계 없이 인생의 전기간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을 학습함을 말한다. 이와 같은 ‘항구적 가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별로 큰 변화가 없는 학습 내용일 때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성실성’, ‘정직성’, ‘근면성’ 등의 가치는 발달에 관계 없이 모든 시대에서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이다.

이와 같이 평생학습은 인간 발달의 각

육바라밀 실천 맑고 향기로운 평생학습

성실·정직·근면은 시공초월 ‘항구적 가치’

다. 밤에는 10시경에 침상에 들고 새벽 2시경에 일어나서 정진하는 것이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취침하고 오직 스님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진의 생활의 계속이었다.

시간의 제약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마음대로 씌으로써 비로소 ‘삶의 질’은 향상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성실(惺惺)한 생활이 바로 평생학습자의 모습이다. 서장(書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으며 이 말이 바로 평생학습자로서의 불자가 취할 태도이다.

조주스님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12시의 고타를 입거나 노승은 12시를 부린다 하시니 이 늙은이의 이 말도 역시도 함이 아니라 또한 법이 이 같은 연고이다.

둘째, 평생학습은 태어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생존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개념이다.

흔히 인간의 생존기간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보고 평생학습을 정의하는 것이

단계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학습 내용과 발달 단계에 관계 없이 평생 동안에 걸쳐 학습해야 할 ‘항구적 가치’의 양면이 있다. 이 양측면 중 불자들의 관심은 ‘항구적 가치’에 집중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는 물질 위주의 관능적 향락, 감각적 문화, 인간소의 현상 등으로 특징지워지며 도덕적 위기의 국면으로 치달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여(眞如)의 세계인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여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항구적 가치’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자로서의 불자는 무종교인이나 기타 종교인과는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실천을 위하여 정진의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절대의 세계인 지 언덕을 향하여 노력 힘차게 저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향기롭고 맑은 삶이 될 것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기발이 왔는가?”
“소식을 얻었는가?”
“기발을 얻었다.”
“한소식한 스님이시다.”

네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발’ ‘소식’은 서로 같은 의미인 듯 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다.

기발은 두 가지가 있다.

기발을 함문으로 기발(奇別) 또는 기별(奇別)로 썼을 경우에는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다. 기별(奇別)의 어원은 조선시대의 승정원(承政院)에서 나왔다. 승정원은 그날 그날 처리한 일들을 적어서 공포했다. 이를 기별이라고 불렀고 기발을 담은 종이를 기별지라고 불렀다. 조선조 관리들에게 기발을 전한

기별(記別)

부처님이 제자의 수행을 인가함 授記의 뜻 ‘한 소식’으로 변용

다는 것은 일이 잘 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한다는 말과 같았다.

불교에서는 기별(記別)이 훨씬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부처님이 제자들의 수행이 무리되었음을 인가해 줄 때 기발을 준다. 기발은 수기(授記)와 같은 말로 미래세에 부처가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이다. 기발을 주면서 부처님은 제자가 성불할 때 부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부처님의 국토 이름이 무엇이며 겁(劫)의 이름이 무엇이며 부처님의 수명은 몇살일 것인가를 밝혀준다.

수기를 얻었다 함은 성불한다는 것이다. 일체의 모든 중생이 기발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 모든 생애에 있다. 이것이 바로 일체중생살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다.

부처님 시대에 이루어진 수기 또는 기발이 요점 선방(禪房)에서는 흔히 ‘한소식’ 얻었다는 표현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 그것도 본래의 마음(本心)과 만나는 수행이라 함은 부처님의 마음과 결합하는 길이다. 따라서 선을 한 끝에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던 한소식을 얻었다는 말은 성불도(成佛道)의 지시판을 얻었다는 말과 같다.

참고 안길모듬 ‘이편사만 아담법석’

도시를 제외한 영해, 양양, 춘천, 공천, 예천 등 다량면의 문화예술품 구입 가능

문화상품권 판매 실시!

책방, 예시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TEL. (02)777-0866, 732-1721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 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정 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현재 국내 감시초유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은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 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병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들은 노화억제 및 암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인장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 수상하였음